

---

# 플라스틱 리스크와 보험산업<sup>1)</sup>

## □ 배경

-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<sup>\*</sup>과 폐기물 발생<sup>\*\*</sup>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과 인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,
- 잘못된 플라스틱 폐기 관행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소송이 증가해 보험사의 대비가 필요함

\*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0년 4억 3,500만 톤에서 2040년 7억 3,600만 톤으로 약 70% 증가할 전망이다

\*\*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절반은 일회용품이며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5% 이상이 토양과 하천으로 유출됨

## □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

- 최근 연구에 따르면,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 뿐만 아니라 물리적 폐기물 및 PFAS, 비스페놀 등 화학적 첨가제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
  - 인체 내 플라스틱 검출량 증가가 보고 되고 있으며, 소화기관, 혈류, 간, 신장, 뇌 등 다양한 조직에서 검출되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
  - 소화기관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큰 입자는 대체로 배출되지만, 미세플라스틱 입자와 내분비교란물질이 인체에 특히 해로운 것으로 알려짐

---

1) 스위스리의 보고서 "Plastics: a new wave of litigation?"을 바탕으로 작성함

---

- 
- 화학물질의 독성이 호르몬계를 교란하여 생식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
  - 미세(<5mm) 및 나노(<0.1mm) 크기의 입자는 세포막과 혈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특히 위험하며, 태반을 통해 태아 조직에 축적되는 현상도 보고됨

## □ 보험종목별 영향

### ① 손해보험

- 플라스틱 관련 피해 및 소송 증가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보종은 손해보험임
-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이 진행될수록 제조·유통·폐기 과정에 참여한 기업들이 환경책임, 재산피해, 신체상해 관련 직접적인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
-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는 원재료의 성분, 화학 첨가제의 안전성,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와 그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
- 유통업체와 소매업체는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한 오염이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음
- 미국에서는 이미 기업의 환경오염 행위, 허위·과장 광고, 생산물 배상책임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, 단일 사건이라도 지급보험금 규모가 크고,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방어 비용도 상당히 증가함
- 연방정부의 환경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환경책임 소송은 줄지

---

않고, 법원, 소비자, 주 검찰총장 등으로 환경보호 집행 권한이 이동하며 오히려 손해배상 리스크와 보험청구 증가 가능성이 존재함\*

\* 사례: 2024년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플라스틱 재활용 가능성을 과장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은 은폐했다는 이유로 에너지 대기업 엑슨모빌(Exxon Mobil)을 상대로 소송 제기

- 유럽에서도 2024년 ‘EU 제조물 책임 지침(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)’ 개정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제조사에 전가되는 등 소비자 보호 움직임이 커지며 플라스틱 관련 소송과 배상금이 늘어날 수 있음
- 한편, 플라스틱 오염 저감장치 등 신기술 및 대체 소재 개발 활성화에 따라 신규 리스크 발생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한다면,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음

## ② 생명·건강보험

- 플라스틱 노출과 특정 질환 혹은 사망 간 직접적 인과관계는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으나, 관련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임
- 향후 인과관계가 확립될 경우, 다양한 사망·질병 요인을 통해 생명·건강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현재까지는 보험사가 취하는 뚜렷한 완화 조치가 없어, 과소 평가된 리스크로 판단됨